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27~28일 개최

'드론, 우리 삶의 일상이 되다' 주제...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야간 드론 라이트쇼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시 드론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캠틱종합기술원 등이 주관하는 '2023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드론, 우리 삶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및 덕진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는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정책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드론축구 등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제시해오며 전주를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성장해왔다.

먼저, 올해 박람회에서는 드론으로 전주의 모습을 담아내는 드론 촬영 공



2023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포스터

모전인 '전주를 담다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이 펼쳐진다. 또한 올해 박람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야간 관광콘텐츠로 주목받는 드론 라이트쇼도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개막 당일 대규모 군집드론이 전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게 되며, 시는 이를 통해 전통과 첨단기술이 조화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미래 전주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2023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고산 일대에서 실증 중인 전주형 드론 물류배송 시연도 진행한다. 시는 배송모델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민참여 이벤트 형태로 덕진

공원 내 비빔밥 배송을 시연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박람회 현장에는 산물 대응 체계 및 자율배송 시스템 구축 등 '드론 실증관'과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 중인 드론축구 등을 소개하는 '드론레포츠 홍보관' 등 다양한 전시·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드론산업은 미래 산업으로, 일상에 혁신을 더하며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박람회를 통해 전주 드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육성에 더욱 매진하여 강한경제 전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과 소통 간담회 우범기 전주시장은 10일 전국 유일의 고용노동부 원격 훈련 기관인 중인동 (주)소능력개발센터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속가능한 혁신 도시, 전주가 선도'

전주미래도시포럼 12~13일 국내외 전문가담론·청년포럼 등 진행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미래도시포럼 2023'에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전주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등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3'을 개최한다.

'대전환시대, 미래를 짚어보다: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은 시가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있는 세계도시들과 함께 대전환 시대의 트렌드와 위기를 짚어보고, 이를 변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아랍 여성 최초의 우주인인 사라 사브리(Sara Sabry)가 기조발제를 맡는다.

올해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는 첫날

사라 사브리의 기조연설 등으로 구성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본 시즈오카와 이탈리아 피렌체, 미국 뉴올리언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글로벌도시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와 참석도시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미래도시선언'을 하게 된다.

이어 포럼 둘째 날인 오는 13일에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의 담론이 이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래도시와 디지털혁신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환경·기후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동시에 UCLG ASPAC(세계지방정부



연합 아태지부)와 전주시가 공동주최하는 청년포럼도 펼쳐진다.

'대전환시대, 청년 역량 강화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청년포럼에는 구글 아

시아태평양 총괄 디렉터에서 투자자로 변신한 미키 김 등과 대한민국지도지사협회 국제화실장, 청년 기업가 등이 참여한다.

전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지난 2018년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미국 변호사 출신 기업가 사라 존스의 참가도 눈길을 끈다.

전주미래도시포럼의 해외전문역할을 톡톡히 한 사라 존스는 올해 포럼의 패널리스트 디지털분야에서는 전문가로, 또 청년포럼에서는 멘토로 참가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는 전주에서 과거를 찾은 그녀가 고향에서 다가올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아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 대전환시대를 맞이하는 자세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은 10일 전주시에 찾아 전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이용자를 위한 6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발달장애인 위한 따뜻한 마음 나누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 전주시에 후원 물품 전달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단장 신우선)은 10일 전주시에 찾아 전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이용자를 위한 60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의 희망사다리기금 사회공헌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광주 남구를 후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전주지역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거주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우선 광주전라지역단장은 "지역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열악한 시설에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 해결과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제9회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조직 등의 연대와 협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9회 2023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념행사(개·폐막

식) △전시·판매·정책홍보(제품홍보, 판매,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정책포럼, 협동골든벨 등)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첫날 오후 3시 전라감영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유공자 포상과 참가기업 라운딩 등이 진행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체

험·홍보(44개) △정책홍보 및 상담관(6개) △공공기관(4개) 등 총 60여 개 규모의 부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 행사에서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지역현안에 대해 토론했던 '정책 포럼' △사회적경제와 전라감영에 대한 퀴즈인 '협동 골든벨' △사회적경제 상품 뽑기인 '상생오라실'과 '두더지게임' 등도 진행된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동절기 주거취약가구 주거생활안정 만전

전주시가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주택관리를 돕기로 했다.

시는 겨울철 가스 및 동파 사고에 취약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 중인 차상위 이하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 및 수도관망과 방수 등 동절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 및 시설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35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까지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가스누출점검 및 가스타이머 설치 등을 지원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노출 수도 배관의 보온 시공과 동결시 해동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상생의회